

# 고려인 집거지의 에스닉 틈새 시장 전략 연구\*

##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고려인 및 내국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 예 지 (대구대학교)  
(poohyj@naver.com)



### 국문요약

이 연구는 충남 아산시 신창면 고려인 집거지의 고려인 및 내국인 자영업자의 에스닉 틈새 시장 전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추적연구이다. 고려인 및 내국인 자영업자의 에스닉 틈새 시장 전략이 지역사회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고려인의 지역사회 정주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정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신창면 고려인 자영업자 12명과 내국인 자영업자 4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하였다. 고려인은 주로 24시간 식료품점, 통역 및 서류 대행 사무실, 기술교육원 및 뷰티 업종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고려인과 전혀 교류하지 않는 내국인 자영업자도 있었지만, 몇몇 내국인 자영업자는 고려인의 유입으로 인해 시장 공백을 인식하고 일종의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었다. 그들은 미용, 청과, 의류 상점을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재도약을 꾀하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에스닉 경제의 활성화는 결과적으로 타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자영업자와 점원, 고객을 해당 지역사회로 유입하였고, 이는 생산과 소비를 자극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편법을 일삼는 고려인 자영업자의 증가로 인한 고려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고려인 집거지, 에스닉 경제, 에스닉 틈새 시장 전략, 고려인 자영업자, 내국인 자영업자, 지역사회 고려인 정주 정책

\* 이 논문은 2025년 1월 21일 “2025 아산시 이주민 공동체 발전 방향성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발전시킨 것이며,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C2A02046334).

## I. 서론

한국사회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장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지역소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으로써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을 적극 유입하여 정착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이주민의 유입으로 형성된 에스닉 집거지(ethnic enclave)를 특화 거리화 하거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 문화를 발굴하는 등 지역 단위의 경쟁력으로써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을 중요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민의 밀집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가 지역정체성(local identity)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정수희 외 2014, 187). 이에 지자체마다 이주민의 유형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연계하여, 지역특화형 비자(F-2-R)와 광역별 비자 등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에 가려져 있던 외국국적동포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들에 관한 연구와 제도, 정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많은 수를 차지했던 중국 출신이 감소하고 있으며, 초국가적 이주(transnational)를 통한 고려인의 귀환 이주(return migration)가 증가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2024년 12월 기준, 국내 고려인 약 11만 명 중 경기도에 가장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아산시가 2위를 차지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고려인의 유입으로 고려인 집거지가 형성되고 있으며, 주요 밀집지로는 안산시 단원구 땃골마을, 인천광역시 함박마을, 광주광역시 월곡동 고려인 마을, 서울 동대문, 경북 경주시, 충남 아산시 등이 있다(곽동근 외 2017; 김경학 2014; 김영술 2023; 박신규 외 2021; 배명숙 2017; 선봉규 2017; 우복남 2022).

고려인의 집거지 형성은 소멸위험지역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다중정체성을 형성한 고려인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에스닉 경제(ethnic economy)로 하여금 지역사회를 발전시킨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의 생산자로서, 상점의 소비자로서, 학교의 학생으로서, 동네의 주민으로서 다중정체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 단위에 거주하는 이주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당 지자체별로 고려인 집거지를 지역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려인 지원센터 설립과 제도를 개정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곽동근 외 2017; 김경학 2014; 김영술 2023; 박신규 외 2021; 배명숙 2017; 선봉규 2017; 우복남 2022). 하지만, 여전히 고려인 집거지라 함은 안산과 인천, 광주 등이 손꼽힌다. 또한, 미디어 노출이 많았던 일명 ‘조선족’과 달리, 내국인 젊은 층 사이에서 고려인에 대한 의미 이해는 낮은 수준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충청남도 아산시의 고려인 비율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충남은 2번째로 고려인이 많은 지역으로 특히, 신창면과 둔포면에 집중(약 8,300여명)되어 있다(연합뉴스 2024/07/05). 충남 아산시(2025년 2월 28일 기준) 인구 395,046명 중 외국인 인구(등록 외국인+외국국적동포)는 38,690명으로 9.8%를 차지한다. 이 중 고려인을 포함한 외국국적동포는 15,235명이다. 그중에서 신창면의 외국국적동포의 수가 5,193명으로 가장 많고 둔포면이 3,954명으로 다음 순이다(아산시 통계 2025). 이에 신창면과 둔포면에는 고려인 집거지가 형성되어 있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시행 2023.06.02.)’를 시행(충청남도 2023)할 만큼 지역소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또한,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1.08.17.)’를 개정(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2021)하였다. 나아가 충남 지역 거주 고려인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지원하고자 한다(우복남 2022). 이처럼 충남은 고려인 집거지를 지역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충남 아산시를 상호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충청신문 2025/01/15).

2025년 2월 28일 기준, 둔포면의 경우, 전월 대비 0.78%의 외국인 인구(등록 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증가하였다. 반면, 신창면은 0.32%의 외국인(등록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이 감소하였다(아산시 통계 2025). 이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0.12%의 외국인이 이탈한 것에 비해 이탈율이 빠르다(아산시 통계 2024; 아산시 통계 2025). 한국으로 먼저 이주한 중국 동포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특정 지역사회의 에스닉 집거지를 이탈하는 재중동포가 증가하고 있다(아시아경제 2024/01/10). 에스닉 집거지에서 기반을 잡고 살아가는 동포 자영업자와 내국인 지역민에게 동포의 지역사회 이탈은 사회경제적으로 타격이 존재한다. 앞선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가장 많은 고려인이 밀집한 충남 아산시 신창면 역시, 몇몇 요소들로 인해 근교 지역 혹은 출신국으로 비자발적 유출되는 고려인 주민이 증가하고 있다(아산시 통계 2025). 하지만 관련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은 초기 수준이다. 내국인 지역민의 인구감소로 인해 고려인을 지역 주민으로 인식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충남 아산시 신창면의 고려인 집거지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이해당사자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제도 및 정책,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내국인 주민이 유출된 신창면에 재중동포가 유입된 후 타지역으로 유출되었으며, 그 자리에 고려인이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언어와 식문화가 비슷한 재중동포 때와 달리, 생산가능인구인 청장년층의 고려인 유입·유출 추세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둘러싼 가족구성원의 연쇄이주도 증가하고 있다. 귀환 고려인의 지역사회 정주가 지역소멸 문제 해소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고려인 유입이 신창면이란 지역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신창면 고려인 집거지 연구는 중요하다.

특히, 청장년층과 그들의 자녀 유입이 활발한 신창면의 경우, 젊은 세대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주거-상점-교육 등의 지형도가 변화하고 있다. 내국인이 유출된 지역사회에서 고려인 집거지의 형성은 내국인 지역민(공장, 상점, 원룸 주인 등)과 해당 지자체에게도 중요 자원으로 인식된다. 고려인 주민은 지역사회에 주축이 되어,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에스닉 집거지 경제(ethnic enclave economy)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남 아산시 신창면을 중심으로 에스닉 경제로 하여금 지역사회 인구 유입 및 유출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변화하고 있는 지역사회 속 고려인 자영업자의 에스닉 틈새(ethnic niches) 시장 전략을 탐색할 것이다. 더불어, 에스닉 시장에서 내국인 자영업자의 재도약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에스닉 경제 지형도 변화를 파악할 것이다. 나아가, 내국인-고려인-고려인 간 갈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요구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정주 및 경제활동의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충남 아산시 신창면 맞춤형 고려인 제도 및 정책,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검토

### 1. 고려인 집거지 연구 동향

고려인 집거지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의 집거지 형성 과정과 농업 콜호스로 인한 사회구조적 변화, 결혼과 문화 등에 집중되어 있다(김경학 1999; 이채문 2016).

이후 고려인의 귀환 이주가 증가하자 국내 이주 요인 및 정착 과정, 가족 유형과 문화 변용 연구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국내 고려인의 실태를 조사하여 정착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김경학 2015; 김영술 외 2013; 김재기 2014; 이은정 2015; 임채완 외 2014).

나아가 고려인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 거주하자, 고려인 마을이 형성되었고, 지역별 고려인 집거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곽동근 외 2017; 김경학 2014;

박신규 외 2021; 선봉규 2017). 특히, 고려인의 주요 밀집 지역인 안산시 단원구 땃골마을, 인천광역시 합박마을, 광주광역시 월곡동 고려인 마을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경북 경주시의 연구도 수행되기 시작하였다(곽동근 외 2017; 김경학 2014; 박신규 외 2021; 선봉규 2017).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충청남도 아산시의 고려인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지역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아산시 고려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충남 아산시 고려인은 몇몇 논문과 보고서 속 전체(국내 고려인 대상 혹은 충남 고려인 대상) 연구참여자 중 2,3명 정도로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영술 2023; 우복남 2022). 충청남도도 고려인과 에스닉 집거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산시, 천안시, 예산군 등 4개 시와 3개 군을 중심으로 고려인의 이주 현실을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있다. 그중에서도 자녀 양육과 교육 여건,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을 강조하였다(우복남 2022).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 충청남도 중에서도 고려인이 다수를 차지하며 고려인 집거지가 형성된 아산시 지역만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타지역의 고려인 집거지 연구와 비교하여, 충남 아산 지역의 고려인 실태 연구는 초기 단계이며, 내국인 및 고려인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제안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가족 이주가 증가하자 고려인 자녀의 정체성을 다루고(김경학 2018), 청년들의 민족 정체성 변화(김혜진 2016)와 취업 문제(지막심 2024), 결혼 실태(김경학 2025) 등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김경학 2018, 2025; 김혜진 2016; 지막심 2024).

나아가 생계 활동이 중요해지자, 집거지 근교 공단에서 노동하는 고려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고려인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에스닉 상점과 자영업에 관한 연구로 확장되었다(선봉규 2017; 김영술 2023). 고려인의 식문화와 언어의 특성상 에스닉 상점과 자영업자가 증가하자, 에스닉 경제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고려인 집거지의 에스닉 경제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고려인 자영업자가 중심이 되어, 상점의 유형과 실태를 관찰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최근 에스닉 집거지에서 고려인 자영업자가 증가하면서 동일 상점별 매출이 감소하거나, 내국인 자영업자의 유출로 지역사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본인만의 전략을 가지고 에스닉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는 고려인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에스닉 시장에서 재도약하려는 내국인 자영업자가 생겨나고 있다. 기존의 에스닉 자영업자 연구는 이주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점과 고객 유형, 내국인 자영업자의 유출만을

반영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 대부분이 고려인의 상황과 지원 방안에 집중되었지, 집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지역민이자 자영업자의 상황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내국인 지역민이 고려인 집거지에서 어떻게 재도약하고 있는지, 에스닉 틈새 시장 전략으로써 고려인 자영업자의 실태를 함께 분석하여, 요구를 반영한 지원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고려인 공동체 간 연대, 쓰레기 무단 투기로 내국인과 고려인의 갈등을 탐색하고 사회통합 방안을 고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조훈 2025; 선봉규 2017; 최아영 2025). 고려인 라디오 공동체와 지역 내 시스템 개선 등을 토대로 상호교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김조훈 2025; 최아영 2025). 하지만, 지역사회 내 음주운전, 사업장 미신고 등 법적 문제에 대해 내국인과 고려인, 특히, 고려인 간 갈등 사례를 구체적 분석하고 지원 방안을 제안한 연구는 부족하다. 지역사회의 고려인 집거지 내 고려인 간 갈등 실태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안 등의 학문적인 관심과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내국인과 고려인 간 사회통합 방안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지만, 지역사회 내 고려인 간 갈등도 함께 다룸으로써 다른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근래 에스닉 집거지를 이탈하는 동포가 증가하면서 집거지 경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고려인이 증가하고 고려인 집거지가 확장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려인 집거지와 에스닉 경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연구는 충남 아산시 신창면 고려인 집거지 전반에 관한 경제활동 및 갈등 양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운다. 특히, 에스닉 경제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도약하려는 고려인 자영업자와 내국인 자영업자의 에스닉 틈새 시장 전략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연구주제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초국가적 이주를 통한 집거지 형성과 에스닉 틈새 시장 전략

### 1)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란 이주자가 제 3자적 관계에서 거주국과 출신국에 초점을 맞춘 관점으로써, 거주국의 이주자는 출신국과 연결하는 모국 지향적 특성을 지닌다. 출신국과 이주자 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재외한인의 초국가적 활동이란 출신국의 선거를 들 수 있다. 이는 제도적 차원에서 출신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친 초국가적 활동이다. 이주자의 출신국과 연계(linkage) 활동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초국가주의도 수반한다(Guarnizo et al, 2003; Marcelli et al, 2005; Portes et al, 2002; Sana 2005; Snel et al, 2006; 이윤경 2017, 170-173). 특히, 정보통신 등의 발전으로 인해, 이주자들은 출신국과 거주국을 동시에 관여할 수 있다(Levitt & Schiller 2004; Mazzucato 2000; 이윤경 2017, 170-173).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한 초국가적 활동은 출신국의 가족구성원과 거리를 좁히고 거주국으로 연쇄이주를 동반한다. 나아가, 출신국과 초국가적 네트워크는 거주국으로 노동 이주와 정착을 수반하여,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출현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고려인의 초국가적 연쇄이주로 인한 지역사회 집거지 형성과 유입, 유출 실태를 초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하였다.

## 2) 에스닉 집거지(ethnic enclave)의 에스닉 틈새(ethnic niches) 시장

에스닉 집거지(ethnic enclave)는 동일한 사회문화적 특징을 지닌 이주자가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는 곳으로 거주국과 다른 사회경제적 구조를 지닌다. 지리적으로 에스닉 그룹을 위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Borjas 1992; Bourdieu 1986; Portes & Manning 1986; 이채문 외 2007; 김영술 2023, 350-351),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에스닉 집거지는 에스닉 그룹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여겨진다(Borjas 1992; Bourdieu 1986; Portes & Manning 1986; 이채문 외 2007; 김영술 2023, 350-351). 에스닉 경제(ethnic economy)는 초국가적 경계를 넘어 노동력과 상품, 정보와 자본, 문화 등이 교환되는 장으로써 이윤을 창출한다(Eduardo 2003; 김지윤 2024, 149). 에스닉 그룹의 밀집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영업자가 동일국적의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등 이주민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에스닉 집거지에서는 민족성을 공유한 사람들이 보유한 에스닉 자원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데 핵심자원이 된다(Borjas 1992; Bourdieu 1986; Portes & Manning 1986; 이채문 외 2007; 김영술 2023, 350-351). 이처럼 에스닉 집거지는 에스닉 그룹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에스닉 틈새 시장 전략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에스닉 집거지에서 고려인과 내국인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탐색하는 틀로써 에스닉 틈새(ethnic niches) 시장 전략은 또 다른 유용한 개념이다.

### Ⅲ. 연구 방법

#### 1. 자료수집 및 분석

이 연구는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의 고려인 집거지에서 거주 또는 경제활동 중인 고려인과 내국인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 질적연구이다. 자료수집은 FGI(focus group interview)와 심층인터뷰 방법을 수행하고 고려인 집거지를 현장조사하였다. 연구참여자가 본인의 초국가적 이주 및 지역사회 유입-유출 요인, 에스닉 집거지에서 경제활동 경험, 지역사회에서 갈등과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한국 이주 및 지역사회 유입-유출 요인은 무엇인가? ② 고려인 집거지에서 경제활동 경험과 변화, 에스닉 틈새 시장 전략은 무엇인가? ③ 에스닉 상점들 속 재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실태는 어떠한가? ④ 지역사회에서 내국인-고려인-고려인 간 갈등과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크게 네 가지로 질문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고려인 공동체 네트워크와 고려인 집거지 내 상점의 점주와 점원, 거주민을 통해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모집하였다. 이를 통해, 신창면에서 거주 또는 경제활동 중인 고려인 12명과 신창면에서 거주하며 경제활동 중인 내국인 지역민 4명, 총 1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서 거주, 경제활동 등 다양한 배경의 연구참여자 선정을 위해 의도적 사례 선택 방법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Creswell, J. 2014). 새로운 내용이 출현하지 않는 포화상태가 16명의 연구참여자들에 도달하였다 판단하여 자료수집 과정을 종결하였다. 이 연구의 주된 자료분석 방법은 심층면접 및 FGI,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주제를 발견해 나가는 내용분석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24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수행되었다. 신창면 고려인 집거지 내 고려인 공동체 사무실과 연구참여자의 상점 및 사무실에서 1회에 걸쳐 2시간 정도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을 받은 후,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자료수집의 전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들로 연구참여자나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익명 또는 부호 처리하였다. 또한, 동의하에 인터뷰 녹음 및 연구 참여 철회 권리 등을 고지하였다. 연구참여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인터뷰에 고려인 통역자가 참여하였다.

##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의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목록

사례	출신국	성별	연령	한국 입국 연도	경제활동/ 직위	거주 지역	이주 요인	체류 자격
1	우즈베키스탄	남	30대	2015	일용직	충남 아산시 신창면	노동	F-4
2	우즈베키스탄	남	50대	2022	일용직	충남 아산시 신창면	노동	F-4
3	우즈베키스탄	여	20대	2024	무직	충남 아산시 신창면	가족 재결합, 자녀 교육, 노동	F-3
4	우즈베키스탄	여	40대	2021	자동차 부품공장/ 생산직 직원	충남 아산시 신창면	노동, 자녀 교육	F-4
5	우즈베키스탄	여	40대	2016	고려인 공동체 사무실/ 사무직 직원	충남 아산시 신창면	노동, 자녀 교육	F-4
6	우즈베키스탄	남	20대	2018	(전)편의점/ 직원	충남 아산시 온양동	노동	F-4
7	우즈베키스탄	남	40대	2013	정육점/ 직원	충남 아산시 신창면	노동	F-4
8	타지키스탄	여	30대	2021	빵·식료품점/ 점원	충남 아산시 신창면	노동	F-4
9	우즈베키스탄	여	60대	2021	빵·식료품점/ 점원	충남 아산시 신창면	노동	F-4

사례	출신국	성별	연령	한국 입국 연도	경제활동/ 직위	거주 지역	이주 요인	체류 자격
10	카자흐스탄	여	20대	2021	꽃집/ 점원	충남 아산시 온양동	노동	F-4
11	키르기스스탄	여	40대	2021	택배·꽃· 서류 번역 사무실/ 직원	충남 아산시 신창면	노동	F-4
12	우즈베키스탄	여	40대	2004	자녀 학교 입학 서류·병원· 경찰서 동행 통역 사무실/ 직원	충남 아산시 신창면	노동	F-4
13	대한민국	여	60대	-	한식당/ 점주	충남 아산시 신창면	-	-
14	대한민국	남	60대	-	치킨가게/ 점주	충남 아산시 신창면	-	-
15	대한민국	여	50대	-	고려인 공동체 사무실/ 관계자	충남 아산시 신창면	-	-
16	대한민국	여	50대	-	미용실/ 점주	충남 아산시 신창면	-	-

연구참여자 16인의 특징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12인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이주한 고려인이다. 노동을 목적으로 초국가적 이주하여, 충남 아산시 신창면의 고려인 집거지에서 경제활동 또는 거주 중이다. 이들의 한국 거주 기간은 1개월~20년이며 연령은 20~60대로 대다수가 청장년층이다. 또한, 고려인이 운영하는 상점과 사무실 등에서 일하고 있다. 반면, 일자리 부족과 한국어 구사 미비 등으로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도 있다. 이들 대다수는 내국인 지역민과 소통이 부재하다. 하지만 모든 연구참여자는 지역사회에서 취업과 가족동반 정착이라는 이중적 관계 유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내국인 연구참여자 4인 중 3인은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서 30년 이상 거주 및 경제활동 중인 자들이다. 1인의 경우, 이 동네의 고려인 공동체에 종사하게 되어 신창면으로 유입된 후, 고려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2인의 연구참여자는 고려인의 유입으로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재도약하고 있다. 반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나머지 2인의 경우, 식문화 차이로 인해 고려인 고객이 없으며 소통도 부재하다. 내국인 자영업자는 내국인 지역민과 중국 동포가 유출된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 IV. 연구 결과

### 1. 고려인의 집거지 유입-유출 요인과 경제활동 전략

#### 1) 초국가적 노동 이주 : 가족재결합과 고려인 공동체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의 고려인 집거지(enclave)에 거주 또는 경제활동 중인 고려인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가족공동체의 비율이 높다. 이들 중 대다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청장년층 고려인으로서 가장이자 학부모이다. 이는 근교에 위치한 또 다른 고려인 집거지인 충남 아산시 둔포면과 비교했을 때에도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다.

모든 연구참여자뿐만 아니라, 신창면의 고려인 대다수는 노동을 목적으로 한국에 이주하였다. 한국을 이주 국가로 선택한 주요 요인은 먼저 한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가족구성원(형제자매, 사촌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이주한 고려인은 출신국과 거주국에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가족구성원의 연쇄이주를 수반하고 있다. 동시적 관여를 통해 노동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자본 축적, 자녀 교육을 통한 사회적 경계 넘기, 가족재결합, 고려인으로서 계층 재생산 등 이주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출현시키고자 한다(Levitt & Schiller 2004; Mazzucato 2000). 이외에도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물가, 선조의 고향, 전쟁 중인 러시아 상황 등도 한국으로 유입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 때문예요. 누나가 저보다 먼저 이곳에 왔어요. 몇 년 정도 전에. 그래서 누나가 여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처음에 누나가 살던 곳으로 왔고. 거기서 일도 했어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몇 개월 후에 다른 도시로 이사를 했어요. 역시 일자리 때문이에요. <사례 1-1>

저는 일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어요. [...] 한국에 누나가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누나한테 왔고, [...] 단순히 역사적 고향으로 왔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살았는지를 보는 것도 좋았고, (한국에 먼저 온) 누나가 함께 도왔죠. [...] 누나가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도와줬죠. <사례 2-1>

저는 남편. 여기에서 남편 일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가족들 함께 살고 싶은데 (자녀와) 한국에 왔어요. <사례 3-1>

처음에는 일을 하러 왔어요. 일 때문에. 애기 (교육) 때문에. [...] (한국에 먼저 온) 사촌 오빠가 도와줘서 여기 왔어요. <사례 4-1>

신창면 거주 고려인의 경우, 신창면이 최초 거주지 이기 보다, 경남 김해, 부산, 충남 합덕, 서산, 인천, 충북 진천, 경기 화성, 안산, 대구 등 국내에서도 몇 번의 이동을 거쳐 현재 신창면에 유입되어 거주하고 있다.

친오빠 있는 화성 발안에 와서 신창으로 왔어요. 이 동네에서 7년 살았어요. 친오빠 아는 사람 여기 있어서. 일 때문에 여기(신창)까지 왔어요. <사례 5-1>

한국으로 왔을 때 처음에는 김해에 있었어요. 합덕. 서산. 인천. 진천도. 그리고 여기(신창)로 이사를 했어요. 전반적으로 거기가 가족이 살기에는 더 좋아요. 친구가 여기 살고 있어서 이곳으로 오게 됐어요. 친구가 살던 집을 싸게 줬거든요. 그렇게 여기 살게 됐어요. 여기가 또 월세도 좀 다른 데랑 좀 싼 데도 좀 싸고 하니까 여기도. <사례 1-2>

여러 도시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9월에 여기(신창)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올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 친구가 여기 있어요. <사례 4-2>

대구 사람이고요. 농공. 원래 대구 농공 쪽에 있었어요. 대구에서 아산 왔어요. <사례 8-1>

위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고려인의 유입 시기가 일렀던 김해와 광주, 안산 등은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신창면으로 유입되는 고려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창면에 거주 중이거나 경제활동 중인 연구참여자들은 신창면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가족 중심의 집거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여기에 살고 싶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하는 것 좋아요. 편리한 것들이 많아요. 생활에서는 좀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좀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 아이한테도 학교 보내고. 여기에서 이제 공부하는 거를 원해요. 아이가 학교 다니고 생활을 여기서 하는 거를 원해요. <사례 3-2>

지금은 나처럼 고려인들이 많이 여기 왔어요. 아기들이 여기 왔어요. 부모님들 어떻게 혼자 있어요. 많이 부모님들이 또 많이 많이 오세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 여기서 아이 둘이랑 어머니랑 살고 싶어요. <사례 5-2>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초기 풍부한 일자리와 비교적 저렴한 주거 비용, 고려인 학생이 밀집한 학교가 위치하는 등 자녀 교육과 정체성 형성, 지인 네트워크 등이 고려인의 신창면으로 유입-정착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아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고려인으로 성장하면서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외모로 차별을 겪었던 본인과 다르게,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에 정착하여 자녀를 출산하고자 한다. 청장년층 고려인의 유입으로 중도입국 자녀와 신창면 출생 고려인 자녀가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내 인구 변화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근데 옛날에는 한국에 살고 싶은 (고려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시다. 처음 와서 돈 벌다가 다시 돌아오고. 근데 요새 계속 한국에 살고 싶은 분들이 많아졌습시다. [...]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아기들이 여기서 이렇게 태어나면. 아기들이 완전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아기들을 키우면 어차피 외모를 바꿀 수가 없죠. [...] (고려인) 여자친구 다시 (카자흐스탄에) 돌아갔어요. 잠시 동안. 한국에 와서 취직하고 싶습시다. [...] (한국에서) 결혼하고. <사례 6-1>

또한, 빵·식료품점과 러시아 식당 등이 갖춰져 있으며, 한국어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러시아어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파트에 ○○중학교도 생겼어. ○○초등학교, ○○중학교 만들고. 다 외국인들 많은데. ○○○대학교에서 (아들) 공부했어요. 고려인들. 다 올해 왔던 친구들 다 다녔어요.

공부하고, 우리 (아들) 6월 달에 왔어요. 여기 ○○○대 12월까지 여기 공부하고, 다시 (초등)학교 들어가는. 먼저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냥 학교 가면 좀 어려워요. [...] 근데 ○○초등학교보다 ○○초 (고려인 학생) 너무 많죠. 아들 학교 때문에 여기 (신창) 와요. [...] 6년 전에, 고려인 상점 그때부터 많이 생겼어요. <사례 5-3>

이사를 왔고, 저는 이곳이 마음에 듭니다. 정말 고려인들이 많은 곳이고 살기에도 편리해요. 이제 우리가 같은 민족도 많고 하니깐,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받고 그렇게 살 수 있어서 마음에 들어요. (한국) 사람들도 호의적이고, 고려인 식당도 많고요. [...] (한국어 공부를 위해서) 러시아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쓰는 곳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사례 1-3>

근래 신창면의 시내버스 노선이 개선 및 신규 운행되면서 신창면의 고려인 집거지에 생산과 소비를 목적으로 유입되는 고려인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옛날에 ○○○아파트부터 신창까지 (오기) 어려워요. 버스 없어서, 신창부터 온양까지 버스 없어요. 지금 버스 생겼어요. 이번 달에 버스 생겼어요. 다리 생겼어요. 내 생각에는 새로운 아파트 때문에 많이. (버스) 46번. 그런데 지금 저만 타요. 많이 없어요. 여기 큰길 있어요. 여기까지 (버스 타러) 가야 돼요. 한 번에 가는 버스 온양까지 있어요. [...] 애들 학교도 가요. 출근도 해요. <사례 5-4>

아산시(2024년 2월 기준)는 신창면 남성리 신아산모아엘가1,2차, 삼부르네상스더힐아파트 입주에 대비해 신규 노선 운행을 결정하였다(아산투데이 2024/01/29). 앞서 언급된 신규 아파트들이 현재 고려인의 거주 지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한몫한다. 또한, 신창-온양 방면 운행이 증가하면서 출근 및 통학 환경이 개선된 고려인들이 신창면으로 유입되고 있다.

특히, 아래 연구참여자가 언급하였듯,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신창면의 고려인 공동체는 강한 유대(strong ties)를 통해 결속(bonding)되어 공동체성을 발현하고 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고려인 공동체) 공간을 찾았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도 하고 배우기도 하니깐요. 재정 문제도, 전체적으로 여기서 서로 소통하고 가족처럼 나눕니다.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고,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듣고 말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 여기서 한국어 배우고 문화 등도. (고려인 공동체 내국인 관계자)

사모님 덕분예요. [...] 정말 좋습니다. <사례 2-2>

(고려인 공동체) 여기서 이제 한국어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친구도 새로 만나고, 막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 있어서 그게 또 좋아요. <사례 1-4>

지금은 여기서 (고려인 공동체) 사무실에서 일도 하고 통역하고, 우리 고려인들한테 도와 주고, 상담 같은 거, 고민 상담이나 일하는 데 힘든 점, 서로 한국말 몰라서 우리 고려인들이 어려워서 여기 와요,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지 비자 연장, 주소도 바꿔야 돼요, 건강보험 이런 거, 건강보험 잘 몰라요, 한국어 잘 몰라서 (고려인 공동체에서) 도와줘요. <사례 5-5>

신창면의 고려인 공동체는 내국인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법률 상담이 가능한 고려인 직원들이 상주한다. 고려인 직원은 지역사회의 고려인에게 비자 연장, 건강보험과 주소 변경 등의 서류 작성, 재정 문제와 노동 갈등 등의 상담, 일자리 소개, 통역과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내국인 관계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을 익히고 있다.

<그림 1> 충남 아산시 신창면 고려인 공동체



평일과 주말에도 청장년층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가 자유롭게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부하는 등 지역에서 사랑방 역할을 한다. 이 고려인 공동체는 지역사회로의 유입과 적응, 정착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스닉 집거지(ethnic enclave)에 먼저 이주하여 자리 잡은 고려인은 신창면에 적응할 수 있는 각종 노하우와 노동 기술, 경제활동 네트워크 인맥과 자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초기 유입자가 에스닉 집거지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데 유용한 요소로 작용한다(김영술 2023, 347). 경제 자본과 인적 자본, 문화 자본과 사회적 관계 자본 등 에스닉 자원의 동원 과정으로 에스닉 집거지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곳이다(김영술 2023, 346).

말하는 (한국) 주민들 거의 없어요. 없어요. [...] 주변 (한국) 사람들하고 별로 이렇게 여기 소통할 일이 별로 없어요. 신창에서. 여기서도 없어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공장에서만.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없고. <사례 1-5>

아이 학교 (한국인) 선생님은. 소통 없어요. 문자로 보내요. <사례 4-3>

여기 옆집에서 사는 (고려인) 사람은. 하루에 몇 번 보면. 인사하는데. 이 집 옆에는 지인네 들이나 인사하지. (고려인 상점) 종업원들은 생전 봐도 말 안 해. 그 (자기들끼리) 말하는 데. 거기 가서 쫓아가서 (내가 고려인에게) 말할 수도 없고 [...] 우리네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 안 와요. (한국식당에) 밥 먹으러 안 와. 그러니까 우리네는 그 사람들하고 상대할 기회가 없지. 우리하고는 말을 안 하니까 모르지. [...] 그러니까 (고려인 상점과 식당에) 가서 먹려고도 않고, 사려고도 않고, 그 사람들도 우리 집 와서 밥 팔아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사례 13-1>

나아가 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내국인 지역민과 교류가 없는 고려인들에게 고려인 공동체의 내국인 관계자는 친구이자 한국으로의 소통 창고이기도 하다. 신창면의 고려인은 한정된 연결망에 머물러있기보다 필요에 따라 접합 혹은 탈각(이호영 외 2013; 정수희 외 2014, 189)하는 식으로 스스로의 연결망을 재구성하고 있다.

신창면이 지닌 위 요소들로 인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청장년층의 고려인 부(父)는 출신국의 아내와 자녀들을 신창면으로 유입시킴으로써 가족 재결합의 특징을 보인다. 신창면에 거주 중인 대다수의 고려인 자녀는 중도입국하였거나, 한국에서 출생하고 있다. 또한, 가족해체 가정의 경우, 모(母)가 먼저 한국으로 이주하여 경제활동을 한 후, 출신국의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신창면에 유입되는 특징을 보인다. 나아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사촌들까지 신창면에서 재결합을 통해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신창면은 고려인의 유입으로 인해 인구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

제가 먼저 와서 일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가족이 왔어요. 아들 두 명, 와이프. <사례 1-6>

아이는 올해 2월 달이요. 아이들 할머니랑 2월 한국 왔어요. [...] 아이 둘 집에 있어요. 어머님 지금 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에 계세요. [...] 친언니 친오빠도 여기 있어요. 친언니 여기 볼링장 옆에 살아요. 원룸에, 사촌 언니들도 여기 있어. ○○아파트, 사촌 언니들 두 명, 사촌 오빠도 있어요. <사례 5-6>

하지만 아래 장에서 살펴볼 수 있듯, 근래 일자리의 요충지인 신창면 일대마저 일자리가 감소하자, 고려인 집거지 경제(enclave economy)가 변화하고 있다.

## 2) 노동시장 고용 장벽 : 자동차 부품공장의 일자리 감소와 한국어 소통의 부재

앞서 살펴보았듯, 노동을 목적으로 이주한 고려인에게 신창면은 경제활동의 요충지다. 신창면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자동차 부품 생산 아웃소싱 공장들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는 고려인의 지역사회로의 유입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자동차 부품 생산 아웃소싱 공장에는 30~50대 고려인 남성과 30~40대 고려인 여성 다수가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근래, 신창면 거주 고려인의 노동시장 진입에 장벽이 존재한다. 현대자동차 부품 생산 아웃소싱 공장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타지역과 타업종으로 인구 유출을 초래하기도 한다.

옛날에 회사 다녔어요. 자동차 회사. (신창 고려인) 자동차 회사 많이 다녀요. 아웃소싱, 30대, 40대, 50대까지. [...] 자동차 공장 일 없어요. 많이 줄었어요. [...] (그래서 일하러 나가는 고려인) 도고도 있어요. 도고 회사 많아요. 둔포까지도 가요. 천안까지도 가요. <사례 5-7>

(신창에)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고려인분들도 일자리가 적으세요.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신창이 (일자리) 없어서. <사례 7-1>

또한, 공장에서 직무 관련 한국어 소통의 부재는 소속 부서 유지와 정규직 전환, 내국인 상사와의 유대 관계 등에 어려움을 수반한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도. 조립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다 알고. 3월이면 일한 지 2년이 돼요. 처음에 어떤 게 제일 어려웠나. 처음에 언어. 언어가 어려워요. 직장생활 언어 문제. <사례 4-4>

일하면서 언어 장벽이 있죠. 예를 들어 그런 때요. (내국인) 책임자들이 엄격하게 지시를 하는데. 이해를 못하고. (고려인에게) 설명 없이 뛰어가서 소리치고.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사례 1-7>

일례로 다수의 고려인은 내국인 상사에게 전달받은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여 일처리가 미숙하자, 내국인 상사와 잦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려인은 내국인 상사의 고향과 욕설에 대응하기도 하지만, 조용히 장갑을 벗어두며 퇴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싸움이 된 게. (내국인) 책임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또 나한테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하는 대로 했는데.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저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미 욕을 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 사람한테 욕을 했어요. 그런 (욕) 단어들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싸우기 시작했고 폭력을 쓸 뻔 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원인이 한국말을 잘 몰라서 생기는 일이에요. <사례 1-8>

우리는 되도록 (내국인 상사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요. 그냥 장갑을 벗는 것. 싸우거나 그런 거는 분쟁 없이. 그냥 나 그만둔다라고. 그냥 장갑을 벗고 그냥 간다고 그래요. 그만. 그러니까. 다른 싸움이나 뭐 그런 건 (안 하려고 노력해요). <사례 2-3>

언어 장벽으로 내국인 상사와 갈등을 빚은 아래 연구참여자는 현재 작업에 익숙해졌지만, 회사로부터 부서 이동과 한국어 교육을 요구받기도 했다.

우리 (내국인 상사와 제) 가 싸움을 해서 서로 떨어지게 했고. 저는 다른 작업장으로 보내졌어요. 저를 해고시킬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일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둘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실로 불러서 한국어 공부해라. 그리고 내가 (한국어) 이해를 못해서. 일을 잘못했다는 걸 설명해줬어요. <사례 1-9>

또 다른 연구참여자의 경우,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내국인 상사와의 잦은 갈등을 참았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에도 어려움을 겪자, 진급에 장벽을 느끼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고려인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동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회사와) 충돌이 좀 있어요. 한 회사에서 2년 이상을 일했고.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되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이유는 모르겠지만 고용이 안된다고 했고. [...] 저를 정식 고용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시다. [...] 지금은 결국 고용되지 못하고. 그 공장에서 일을 안하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 근로자로서 일자리가 좀 많은 것보다는. 이제 정직하게. 그쪽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례 2-4>

공장 내에서 조차 내국인 상사와 교량(bridging)형의 약한 유대(weak ties)를 형성하고 있는 고려인이 직면한 또 다른 노동장벽은, 생산 수량의 증가와 임금 상승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2년 이상 한 공장에서 노동 중인 연구참여자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고려인은 여전히 내국인보다 생산해야 할 수량이 많고 노동 시간도 길다. 이를 지역사회에서 차별이라 느끼며, 보너스의 경우 내국인 직원만 받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표현한다.

차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 수량을 우리한테는 많이. 그 사람들한테는 적게 줘요. 생산하면서 생산 수량이 있잖아요. 한국인이 일하는 팀은 적고. 우리는 많아요. 월급 차이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보너스가 있는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례 4-5>

직무 관련 한국어뿐만 아니라, 간단한 의사소통도 어려운 신장면의 다수 고려인은 노동시장에 진입과 직무 유지 및 진급에 장벽을 느낀다. 따라서 경제활동과 한국어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주말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일과 자녀돌봄을 병행하기에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하며 대다수가 한국어 교육에 있어 의욕 저하를 보인다.

시간 없어요. 없어. 일해야 돼요. 저도 (한국어 공부하러) 어딜 가질 못해요. 늦게까지

알해요. 여기도 한국 수업 있었어요. 무료로 해줬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잘 안 다녔어요. <사례 5-8>

(한국어)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욕구는 있는데. 근데 배우기가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일하니까 퇴근 후에 추가로 더 공부하는 게 어렵잖아요. <사례 6-2>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 주말 프로그램 있으면 좋아요. [...] 일하고 돌아오면 너무 힘들어서 어떤 정보도 들을 여력이 안됩니다. 오로지 먹고 잠자고 싶은 생각뿐이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례 1-10>

우선은 언어를 알아야 해요. 배워야 합니다. 뭐 소통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통역을 두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 보통 생활이 이제 바쁘니까. 회사에서 지내고 하니까. 그 회사에서 쓰는 용어들. 단어들. 그것만 알지. (한국어 배워야 하는 것) 알고 있으면서. (회사 용어를 조금 안다는) 그거에 만족감. 만족을 이제 느껴요. 주말에는 아이들 돌봐야 하고요. <사례 4-6>

이들은 내국인 상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고용, 부서와 직무 유지, 정규직 전환과 진급, 월급 상승과 보너스 수령 등에서 교량형(bridging)의 약한 유대(weak ties)를 보인다. 이는 신창면에 거주하던 고려인 가족의 분리를 수반한다. 부(父)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의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모(母)와 자녀가 조금 더 저렴한 주거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신창면 고려인 주민의 인구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일 때문에. 아이들. 와이프. 합덕에 있어요. 거의 매주 아이들한테 다녀와요. [...]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 지금도 방금 다녀온 길이고요. 우리는 같이 쉬는 날에는 하루 내내 산책을 해요. <사례 1-11>

남편이 먼저. 5년 전. 한국에 왔어요. 건설일. 전에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옛날에 회사에서 생산직이었는데. 현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건설 현장. 지금은 부산 있어요. <사례 3-3>

나아가 고려인 부(父)는 신창면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적응과 구직 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모(母)와 자녀가 출신국으로 비자발적 귀환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고려인 집거지 경제(enclave economy)의 변화가 지역과 한국 사회 유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우즈베크에 돌아간 사람 있어요. 남편은 한국에 있고. 엄마랑 야기. [...]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우즈베크에 이미 익숙하고 그곳이 일상 공간이죠. [...] 나이든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하기) 더 어려워져. 여기에서 이제 다시 적응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나이가 좀 들면 어렵고. 그것 때문에 이제 돌아간 사람들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아요. <사례 2-5>

이처럼 신창면 고려인이 직면한 노동시장의 장벽은 아래 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인력사무소와 연계한 일용직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 3) 경제활동 지형 확장 : 인력사무소와 연계한 일용직의 증가와 농공단지 진출

앞서 살펴보았듯, 일자리 감소 등의 요인으로 고려인이 자동차 부품 생산 아웃소싱 공장을 비자발적 이탈하고 있다. 이는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찾아 이동하게 함으로써 경제활동 지형의 확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때 고려인은 인력사무소를 새로운 집거지 경제(enclave economy) 자본으로 인식하고 사무소와 결속형(bonding)의 강한 유대(strong ties)를 맺는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신창면의 고려인 거주지 일대에서는 인력사무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림 2> 러시아어로 안내된 인력사무소



에스닉 집거지 내 인력사무소들은 신창면 일대의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의 일자리 감소라는 경제 시장 구조를 인식하였다. 이에 러시아어가 가능한 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구직 중인 고려인의 노동시장 장벽을 허물고자 하였다. 간판에 러시아어를 추가하고 구인 알림판의 경우 러시아어로 직종과 직무, 근무 요일과 시간, 월급 및 일당 등을 안내하고 있다. 내국인 고객이 줄어든 사무소에 고려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소개 시스템을 자본화함으로써 틈새 시장을 겨냥한 경제적 전략을 내세운 것이다. 고려인 노동자의 측면에서도 인력사무소의 활용은 노동의 유연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자동차 부품 생산 아웃소싱 공장의 일자리 감소와 고용 및 임금의 불안정은 인력사무소와 연계한 일용직의 증가와 타 직종 공장으로의 경제활동 지형에 변화를 가져왔다.

일례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자동차 부품 생산 아웃소싱 공장을 비자발적 퇴사하거나, 구직 중인 고려인의 경우, 동네의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교의 건설 현장과 용접업체 등에서 일용직 노동이 증가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고용된 건 아니고요. 정식 고용하는 일은 없어요. 일용근로. 그때그때 여기 인력회사가 그러면 소개를 잘해 주세요. <사례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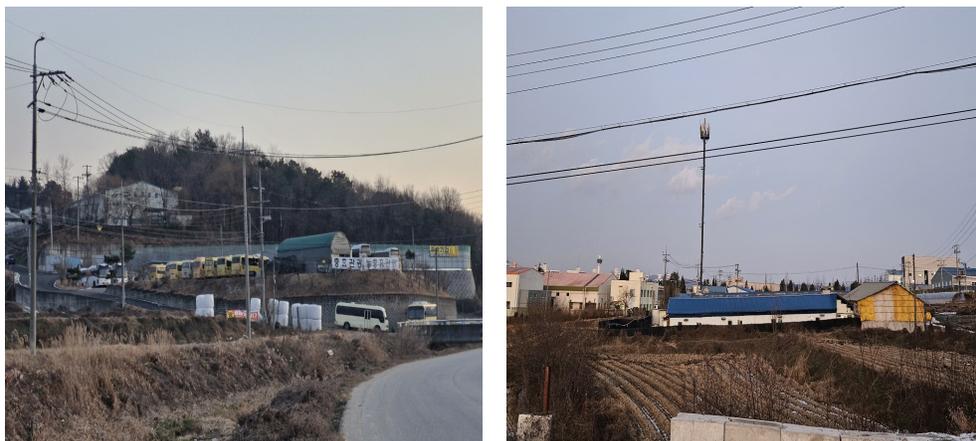
요즘에는 (고려인들이) 이직을 많이 해요. 딴 일 하는 게 많아졌어요. 월급 작아졌어. 인력사무소 소개해요. (고려인들은) 또 다른 데 (일하러) 가요. <사례 5-9>

하지만, 인력사무소와 연계는 임금(일당 포함)의 일부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회사(공장)와 인력사무소, 고려인 본인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듯, 구직이 어려운 고려인들은 인력사무소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력)사무실을 통해서 일을 하면 많은 퍼센티지를 급여에서 떼어갑니다. [...] (회사와) 사무실과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 일은 내가 하지만 사무실은 내 급여에서 퍼센트를 매겨 가져갑니다. 급여의 큰 부분입니다. 얼마정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몇 만원 정도라면 동의합니다. <사례 2-6>

특히, 신창면 고려인의 경우, 인력사무소를 통해 고려인 거주지 근교에 위치한 배미농공단지와 득산농공단지로 진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득산농공단지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그게 여기 뭐 배미공단. 득산농공단지 쪽에 있어요. 여기는 아웃소싱. 뭐. (고려인) 여자. 남자도 많아요. 〈사례 5-10〉

근교의 배미, 득산농공단지 외에도 도고면, 예산읍, 둔포면, 천안시 등으로 진출하여 노동 중인 신창면 고려인의 직종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판과 타일 제조 공장, 플라스틱 공장, 철강, 사출, 테크 공장 등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에 자동차 공장 일 많이 없어요. [...] 화장품 공장 있어요. 화장품. 과자 공장 있어요. 마스크 공장. 코로나 때 마스크 공장 정말 많이 갔어요. [...] 화장품. 과자 공장 이런 데 많이 가고. 그거 장판. 타일. 뭐 그런 도매. 사출 공장도 있어요. 테크. 공장 많이 다녀요. 쓰레기봉투도 만들어요. [...] 공장 같은 거 250. 270만 원. 일이 많이 있으면 400까지 이렇게 벌어요. 〈사례 5-11〉

이외에도 화장품 공장, 과자 공장, 쓰레기봉투 제작 공장 등에서 다수 일하고 있다. COVID-19 시절에는 마스크 수요에 따라 '코로나 때 마스크 공장 정말 많이 갔어요.'라며 일자리가 많았을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이들은 약 250~27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주말과 야간에도 특근을 통해 강도 높은 근무와 수량을 생산하며 약 4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위의 공장과 건설 현장 등에서 수요가 적은 50대 고려인 여성은 농업 단지와 요양원 간병, 호텔 청소, 식당 등에서 일한다. 50대 남성의 경우는 사과 공장 등에서 박스 포장 및 박스를 나르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고려인의 경제활동 변화는 지역사회 유입 및 유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공단지에) 사과 공장도 있어요. 포장해요. 무거워요. 남자들도 가요. 포장 알바할 때. [...] 나이 많은 사람들. 할머니들이 간병. 요양원에 (일하고) 있어요. 도고. 엄마 계신 병원에서 어머니 계신 병원에 고려인들이 많았어요. [...] 나이 많은 사람 일하고 싶어요. 우리 러시아 식당. 한국 식당. 설거지 많이 해요. 호텔도 청소해요. <사례 5-12>

나이가 다수의 고려인이 고용 문제가 안정되자, 상점과 지원 센터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아래 장에서 살펴볼 수 있듯, 경제활동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몇몇 고려인이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영업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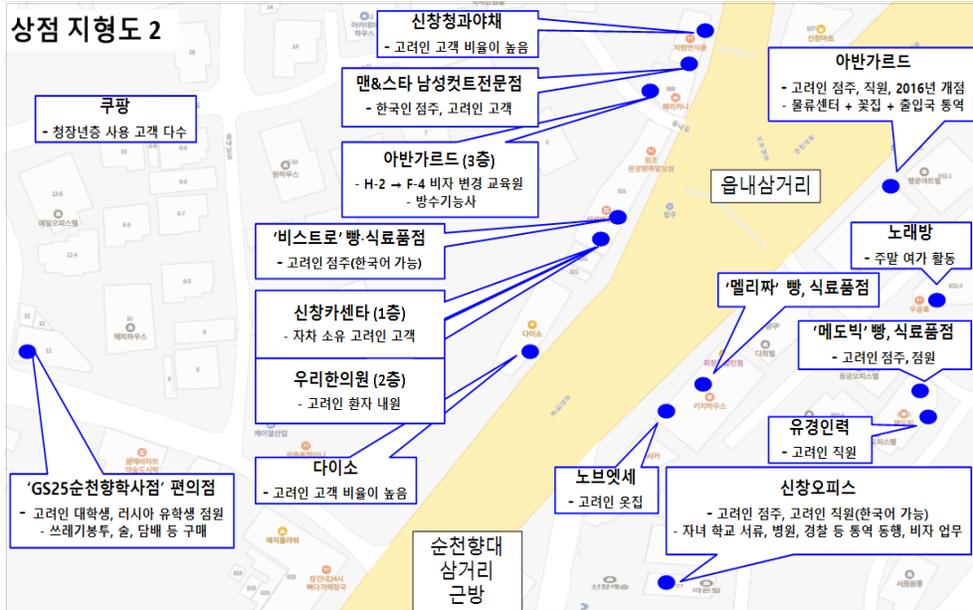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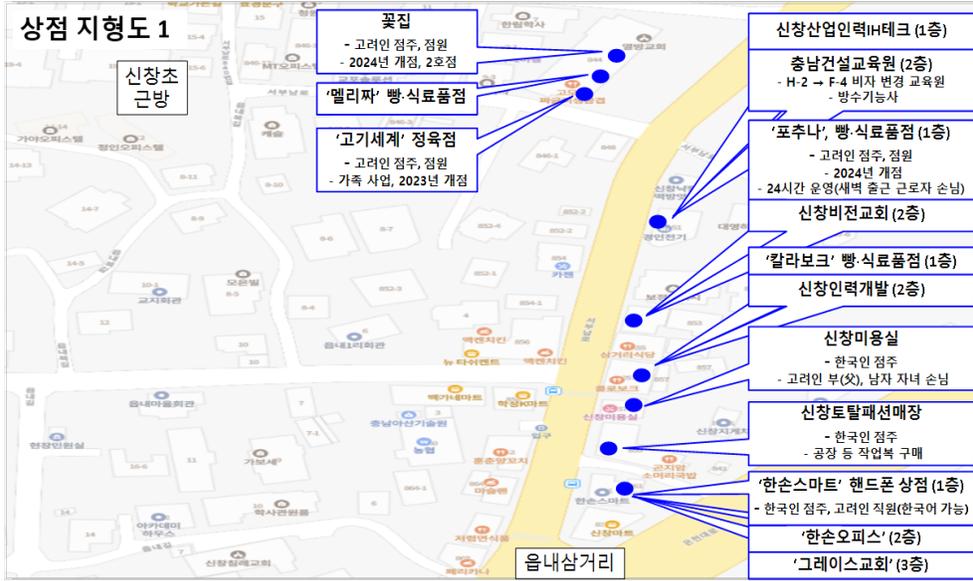
#### 4) 에스닉 틈새 시장 전략 : 고려인 자영업자의 증가와 고려인 간 갈등 양상

##### (1) 경제활동 고려인의 지역사회 유입 촉진과 24시간 운영

고려인 자영업자는 재한 고려인의 요구를 기반으로 소비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에스닉 틈새(ethnic niches) 시장을 공략한다. 에스닉 시장에서 자영업이 촉진될 수 있는 예로는 식료품점과 레스토랑, 의료 및 건강서비스 지원, 이민 지원 등이 있다(김영술 2023, 348).

충남 아산시 신창면의 고려인 자영업 증가는 상점의 변화와 소비 및 경제활동의 변화, 인구 유입의 변화 등을 수반하고 있다. 에스닉 집거지에서 에스닉 그룹 내 고용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Borjas 1992; Bourdieu 1986; Portes & Manning 1986; 이채문 외 2007; 김영술 2023, 350-351), 집거지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인구를 유입시키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고려인 자영업자는 지역 상권 형성의 주체로서 에스닉 틈새 시장 전략을 발휘하여 경제활동을 확장하고 있다.

〈그림 4〉 충남 아산시 신창면 고려인 집거지 상점 지형도



위 그림에서 신창면의 상점 지형도(2024년 12월 기준)를 살펴보면 직접 만든 빵과 반찬을 판매하는 식료품점이 가장 많다. 고려인 집거지에서 대다수의 고려인 자영업자는

식문화를 공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에스닉 상품화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아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고려인 유입 이전 신창면에 거주했던 재중동포와 달리, 고려인의 경우 내국인 지역민과 식생활과 언어가 달라 식문화 에스닉 상점의 증가 추세가 빠르다.

나는 시집와서 (신창에) 한 50년 넘게 살았어. 여기서 살아요. 여기. 여기 집이에요. [...] 변화는.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고서 중국 사람들 가고 나서. 이 (고려인)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한 이 사람들이 한 4~5년 됐나. 오는지. 오고 가고 10년 됐어. <사례 13-2>

주식이 다르니까. 그 사람들은 빵 문화고 우리는 쌀 문화. [...]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상점 변화) 안 했었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고려인 상점) 차고 있지. 기업 구조도 그렇고. 그 (중국 동포) 사람들은 우리하고 음식 문화가 맞아. 기본적으로.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온 사람들은 고려인이고. 그 차이야. 조선족하고 고려인도. 중국 사람들은 말이라도 통하는데. 애네들은 말도 안 통하고. (중국 동포는) 일단 먹는 문화도 같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된다고. 일단은 (고려인은) 우리하고는 의식 구조가 달라. 고려인들이 (우리 가게 치킨을) 시켜 먹기에는 최저임금만 받으면. 그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 가족이 대가족이 이동해. 근데 여기 (고려인) 빵집 가면. 닭도 이렇게 튀겨서 판다는데. 여기 (고려인) 빵집 다 팔아. 저 사람들은 향신료 위주고. [...] 의식 문화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 거지. <사례 14-1>

신창면의 빵·식료품점 대부분은 고려인이 점주이며 고객과 소통이 가능한 청장년층의 고려인 여성 점원이 판매를 한다. 빵·식료품점의 한 공간에서는 노년층의 고려인 여성이 출신국에서 즐겨 먹던 빵과 만두, 당근 김치 등의 반찬을 직접 만든다. 민족성을 공유한 인적 자원이 동원되어 에스닉 경제를 형성(ethnic economy)하고 있다.

〈그림 5〉 직접 만든 빵과 반찬을 판매하는 빵·식료품점



여기 러시아 가게 많아요. 러시아 식당도 여기 많아요. 여기 신창에, 사장님 같아요. ○○  
○ 가게 3개 있어요. 고려인 사장님. 빵 사러 가요. 햄, 케이크, 만두, 치즈. <사례 5-13>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에스닉 틈새 시장을 공략하여 24시간 운영하는 빵·식료품점이 근래 개점한 것이다. 큰길로 향하는 출퇴근길에 위치한 이 빵·식료품점은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고려인의 경제활동 시간에 맞춰 24시간 운영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림 6> 24시간 운영을 전략으로 개점한 빵·식료품점



지난달 14일에 (상점) 열렸어요. 근데 그 전에 다른 고려인 사장님. 다른 이름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고려인 사장님입니다. 고려인 가족들이 많이 와서 사가요. 아기들, 어른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거의 없고, 일하시고 주로. [...] 여기 (빵) 직접 만들어요. [...] 한 사람이 쪽 (일)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2명에서 일해요. 다른 사람 있어요. 편의점처럼, 24시간 (일)해요. 아침 일찍 문 여는 이유는, 여기 에 오는 사람이, 아침 일찍 많아요. 밤 늦게 퇴근하고 많아요. 아침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와서 밥 같은 거, 빵이랑 이런 걸 사 가요. <사례 9-1>

고려인 집거지 내 다른 빵·식료품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으로 동네의 빵·식료품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려인 고객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아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내국인이 운영하는 24시간 대형마트로 유출되는 고려인 고객이 증가하였다. 내국인 점원만 있는 이 마트는 세일 등의 간단한 러시아어만 안내되어 있을 뿐이다.

에스닉 경쟁 업체의 포화와 내국인 마트로의 고객 유출로 인해 위 사진 속 상점의 이전 자영업자의 경우, 가게를 고려인에게 인수하였다. 상점을 인수받은 고려인 자영업자는 동일한 시장 구조 속 경쟁적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24시간 운영을 전략화하여 2024년 11월에 개점하였다. 이 빵·식료품점의 고객 동원과 자본 축적의 핵심 자원은 틈새 시장을 공략한 24시간 운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여기 ○마트는 주인 사장님 한국인이예요. (마트) 커요.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다 한국인 이예요. 근데 ○마트 이거 좋아요. 24시간 밤에 가도 돼요. 밤에 고려인, 러시아 사람 많이 와요. [...] 낮에 (일하니까) 시간 없어서. [...] ○마트에 러시아 안내 조금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세일 (안내) 제일 중요해. ○마트 옆에 ○○○마트 옆에 있어요. 근데 ○○○마트 10시까지 일해요. 늦게 가면 시간 때문에 ○마트에 자주 가요. <사례 5-14>

또한, 신창면 고려인 거주지역 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고려인 고객이 많이 찾자, 고려인 대학생과 러시아 출신 유학생을 점원으로 고용하여 운영 중이다. 이들이 주로 일하는 시간대는 밤과 새벽에 배정되어 있다. 이처럼 고려인의 증가가 지역사회 고용시장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

<그림 7> 고려인 고객이 다수인 주거 지역 내 편의점



여기서 (○○편의점) 일을 했어요. 4년. ○○편의점의 변화. 원래는 한국인이 많이 왔는데. 이제 고려인들이 많이 와요. 원래 출퇴근 시간에 (손님) 엄청 많고. 그리고 담배나 술이나 많이 사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인들이 돈을 아끼지 않고 필요 없는 걸 많이 사요.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열심히 계산하죠. 고려인들은 그냥 저거 그냥 쪽 다 사요. [...] 원래 거기 (신창) 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평소애 (○○편의점에

고려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남자 여자 (손님) 반반인데, 완전 반반이에요. 그리고 나이는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손으로 일하잖아요. 힘든 일을 하시죠.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그런 일을 못하시죠. 그래서 뭐, 50대까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많고, 20대, 대부분 20대부터 50대까지예요. [...] (손님 중에) 아침 일찍 출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뭐 (손님 오는 시간) 7시 8시 정도예요. 그리고 퇴근 시간 9시, 저녁 5시, 저녁 9시, 7시, 8시, 9시, 그리고 하루에 16시간씩 (일)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 제가 (○○편의점) 밤에 (일했어요), 밤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예요. 야간을 했습니다. [...] (○편의점 일하는 사람) 5명, 사장님, 알바생 3명, 4명, 알바생 우즈벡, 우즈베키스탄 사람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유학생도 있어요. <사례 6-3>

편의점 많이 가요. 저 아파트 옆에요. ○○편의점, ○○○편의점도 있어요. 오늘 꼭 아파트 ○○○편의점 가야 돼. <사례 5-15>

또한, 정육점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아래 연구참여자의 경우, 가족 사업의 형태로 형이 점주인 정육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다.

2013년 한국 왔어요. 안산에. 정육점 때문에 신창에 왔습니다. [...] 사장님 부르셨어요. (저는) 사장님 동생이에요. 사장님이 형, 가족 사업, 저를 여기 불렀어요. 신창에 형 가족, 사촌 가족 아주 많습니다. [...] 그전에는 (여기) 러시아식 카페가 (있었어요). [...] 정육점 일을 하려고, 신창이 (정육점) 없어서, 사장님 불렀어요. <사례 7-2>

그는 먼저 이주한 가족구성원과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이라는 국가를 넘어 신창면이라는 지역사회로 유입되었다. 가족과 재결합한 신창면의 고려인은 고려인 자영업자가 장악하지 않은 새로운 업종을 발굴하고 가족 사업이라는 경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자영업 형태 및 업종의 다양성을 가져왔다. 이는 지역사회 고려인을 점원으로 고용했던 에스닉 노동시장 구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 간 연쇄이주한 경제활동 고려인의 지역사회 유입 및 정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외에도 다른 에스닉 집거지와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고려인 상점의 특징은 거주지 내 꽃집이 많다는 것이다. 고려인들은 기쁜 날과 특별한 날에 여성들에게 꽃을 선물하는 문화가 있다. 에스닉 틈새 시장 전략으로써 에스닉 그룹의 문화적 특징을 상품화하여 창업하는 에스닉 기업가(ethnic entrepreneurs)가 증가하고 있다(김지윤 2024, 142).

〈그림 8〉 꽃집



꽃집이 엄청 많아요. 그냥 이게 우리 러시아 문화인데. 여자한테 꽃다발. 꽃다발을 많이 줘야 해요. 〈사례 6-4〉

(저는) 온양 살아요. 사장님 천안에 살고. [...] 러시아 꽃 선물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6개월 전에 오픈했어요. 꽃집 천안에 있었는데. 거기에 손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로. 천안 1호점. 신창 2호점. [...] 하루에 (손님) 8명 정도, 10명 정도. 그리고 주말에 20명, 26명. 많이 와요. 이거 행사 때 크리스마스, 새해. 행사 시절에 50명 그 이상 있었어요. 〈사례 10-1〉

위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신창면에 위치한 한 꽃집의 경우, 평일 하루 8~10명, 주말 20명 이상, 크리스마스과 새해 등에는 50명 이상의 고려인이 찾을 만큼 수요가 높다. 이에 고려인 점주는 천안 1호점에 이어, 신창에 2호점을 개점하였다. 고려인 점주와 점원의 경우, 경제활동을 이유로 천안과 온양에서 신창면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처럼 고려인 집거지 내 고용시장의 변화가 타지역 고려인의 지역사회로 유입을 촉진시키고 있다.

## (2) 고려인 사무실의 증가 : 지원 서비스 병행 및 특정 분야에 집중

또 다른 주요 특징으로는 고려인 학생 등이 밀집한 지역적 특색을 살려 가족구성원을 지원하는 사무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원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첫째, 고려인 자녀의 학교 입학에 위한 아포스티유 공증, 병원, 경찰서, 출입국사무소 등 동행 통역, 출신국 택배 배달, 비자 연장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번역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사무실이다.

이제는 이런 오피스도 많아요. 사무실. 신청은 오피스 많아요. ○○오피스 이런 거. 옛날에 없었어요. 처음 왔을 때 없었어요. 서류. 이거 아포스티유. 서류 같은 거. 아포스티유. 서류 옛날에 이런 거 없었어요. 출입국 비자 연장 이런 거 해요. 아포스티유 이런 사무실이 많이 생겼어요. 사무실이 ○○오피스. ○○○○○. 요즘 많이 생겼어요. <사례 5-16>

아래 한 사무실의 경우, 초기에는 출입국사무소 서류 작성 업무로 개점하였다. 이후, 꽃집을 병행하고 현재 택배 수요가 증가하자 택배를 출신국으로 보내주는 물류센터의 역할까지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물건 보낼 때. 이것도 고려인들이 많이 사업 그거 해요. 택배 사업 많이. 우리 동네에도 여기 ○○. 우리 동네에도 (택배 회사) 있어요. ○○○○○. 페이스북에 광고 많이 있어요. 그냥 전화하고 아파트 가져와요. 택배 가져. 가지고 택배 보내요. 우즈베키스탄까지 짐 가지고 와요. 우리 동네에 여기 ○○○○○라는 회사 그거 있어요. <사례 5-17>

여기서 (○○○○○ 사무실에서) 꽃 팔아요. 택배도 보내요. 여기 택배 있으면 회사 가져가요. 편의점처럼. 우즈벡, 러시아 집에 택배 가요. 라면, 김, 과자 많이 보내요. 그리고 출입국사무소 서류 일해요. <사례 11-1>

<그림 9> 수요에 기반하여 전략적으로 업종을 병행하는 상점



신창면에서 고려인을 위한 사무실로 손꼽히는 아래 ○○오피스의 경우, 고려인 자녀의 입학에 위한 서류 작성 및 아포스티유 공증, 병원을 동행한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고려인 운전자와 동행하여 경찰서 통역 업무를 주로 한다.

〈그림 10〉 고려인을 위한 통역 동행 및 서류 처리 사무실



지금 거의 다 (고려인들이 한국에) 가족 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 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서류들이 들어가거든요. 아포스티유. 서류 준비. 그래서 저희가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통역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거든요. 〈사례 12-1〉

특히, 의료 지원 서비스로 근교의 병원에 동행하여 통역 업무를 수행한다. 신창면의 고려인 집거지 근처에는 큰 병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려인을 위한 통역과 네트워크가 형성된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한 번 이거 피 검사했어요. 작은 아들 거기 갔어요. 버스 있어요. 온양에 ○○○○병원. 우리 동네에 병원 없어요. ○○○○병원. 버스 있어요. 큰 병원 있어요. [...] 우리 동네 2층 병원 있어요. 거기 작아요. 안 가봤어요. 큰 병원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례 5-18〉

따라서 신창면의 고려인 자녀 다수는 사무실과 연계된 타지역의 ○○소아청소년과의원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또한, 근교에 종합병원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충남 아산시 모종동에 위치한 종합병원인 ○○○○병원을 다수 고려인이 이용하고 있다.

여기 분들이 병원이나. 병원도 거의 매일 저희가 같이 통역하러 가요. 신창 아니고. 그거는 여기가 그 ○○○○병원이 있거든요. 저희 (신창에)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거의 주로 거기서 가고요. 모종동으로. 자녀들도 아프면 ○○소아청소년과의원까지 가요. 배방읍에. 원장님이 신뢰가 있는데. 그 원장님과 신뢰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니까 멀어요. [...] 병원에 다른 (언어) 통역 좀 있어요. 러시아어 코디네이터가 없어요. 러시아어가 가능하신 분들이 사실 없어요. <사례 12-2>

몇몇 연구참여자는 신창면 고려인 집거지에 병원이 적은 점을 아쉬워한다. 병원 내 러시아어 통역의 증가 등 사무실을 통해,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의 의료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지적된다.

나아가 모든 연구참여자는 고려인 대상, 건강보험 제도에 관한 변화를 요구했다.

건강보험 부담이 많습니다. 보험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인을 위한 건강보험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6-5>

건강보험 관련해서 너무 높습니다. 100달러 이상 매월 내고 있어요. 너무 금액이 큼니다. 혼자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저희는 어머니. 아이가 있어요. [...] 현재로서는. 현재 이제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지금. 또 올라가죠. 올라갔어요. 지금부터 이제 올라 가지고 그게 제일 부담된 거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해줄 텐데. 직장에서 해주긴 하는데요. 근데 가족들이 있잖아요. 부모나. 부모님. 다른 이제 누구 성인. 다른 친척들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또 올라가서 2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부담이고. 그거를 좀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례 1-13>

고려인 지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아래 연구참여자에게서 알 수 있듯,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은 영주권(F-5(영주) 체류자격) 및 귀화 취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데 사실 F-4는 다른 비자보다는 조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려인이 F-5나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이유는. F-4는 체류기간이 최대한 4년만 연장이 가능하고요. 영주권은 10년 이하.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한국 사람처럼 건강보험 줄어듭니다. <사례 12-3>

나아가 고려인 지원 사무실에서 병원 외, 상담 및 통역을 가장 많이 동행하는 분야는

음주운전 관련이다. 아래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 고려인 집거지에서는 F-4(재외동포)와 H-2(방문취업) 체류자격의 고려인을 위한, 자동차 판매 광고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1〉 고려인 대상 자동차 판매 광고판



광고판 증가만큼이나 자차를 이용하는 고려인이 늘어나자, 음주운전에 관한 위반사항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가끔 외국인들이 위반이 있을 때. 거기 비자 연장할 때 위반이 나오면.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도 (통역) 가 있어요. (경찰서 통역가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 음주운전이 제일 많아요. 주로. 〈사례 12-4〉

고려인들 운전 많이 해요. 다들 차 가지고 있고요. 음주운전도 많고. 다들 차를 너무 난폭하게 몰아요. 어떨 때는 무섭다니깐요. 문제예요. 〈사례 15-1〉

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신창면 내 고려인의 음주 및 과속운전은 내국인 지역민과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고려인 집거지 내 고려인 지원 사무실에서는 내국인 지역민의 민원 문제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에스닉 집거지 내 고려인 지원 사무실들의 경우,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요구에 기반한 서비스 분야를 형성하고 있다. 번역 및 서류 처리 - 통역 통행 - 택배 사업 순으로 서비스 시스템이 갖춰졌다. 특히 위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각 사무실마다 틈새 시장을 공략한 특정 분야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에스닉 집거지 경영 시장의 사회구조적 특성 같은 것으로 암묵적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이때 타 사무실의 직원들에 비해 비교적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조합하는 것을 경영 전략으로 내세웠다. 그녀는 초기 번역 및 서류 처리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경쟁사가 늘어나자 꽃집을 병행하고 현재는 택배 사업을 주요 분야로 소개하고 있다. 경쟁 업체의 증가와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려인 직원이라는 인적 자원의 증가는 지원 서비스의 병행 및 특정 분야에 집중이라는 자영업 전략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신창면 고려인 집거지에서 증가하고 있는 또 다른 사무실의 특징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2〉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술교육원 사무실



둘째, H-2(방문취업)인 고려인이 F-4(재외동포)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방수기능사 등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기술교육원 사무실의 증가이다. 근래 신창면 고려인 집거지 일대는 신축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어 기술을 가진 노동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H-2(방문취업) 체류자격 고려인의 경우 비교적 취업이 어렵자,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라도 F-4(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고려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때 기술교육원 사무실은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징과 고려인의 제도적 특징을 결합한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자격증 취득을 통한 비자 변경을 자영업 전략으로 내세우고 에스닉 집거지에서 사회경제적 재도약을 추구하고 있다.

옛날에 이거 (기술교육원) 는 없었어요. 자격증. 자격증 받으면 F-4로. H-2 비자 F-4로 바꿀 수 있어요. 처음에 (신창) 왔을 때 이런 (기술교육원) 거 없었어요. 지금 가능해요. 자격증 받고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이거 (자격증) 어떻게 따는지. 어떤 학원 같은 거였어요. (기술교육원에) 돈 주고 이렇게 해요. [...] 학원 사이트예요. 이거는 그냥 광고에 있었어요.

페이스북 고려인들이 페이스북 많이 써요. 페이스북에서 (기술교육원) 이런 광고 많이 올려요. [...] 여기 동네에 (기술교육원) 간판이 있어요. <사례 5-19>

이처럼 사무실을 통해 에스닉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고려인 자영업자는 시기별, 대상별 고려인의 수요와 지역사회 중심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하여, 고려인 대상 지원 서비스를 병행, 특정 서비스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 (3) 고려인 여성의 뷰티 자영업 증가 : 편법에 대한 고려인 간 갈등 확산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서는 고려인 여성을 위한 네일, 속눈썹, 헤어 등 뷰티 업종의 고려인 여성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여성 점주의 경우 평일에는 공장 등에서 일하며 주말을 이용하여 시간제 취업 형식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뷰티 숍(beauty shop)을 운영하고 있다.

고려인 여자들이 동네에서 속눈썹. 머리. 네일아트 사업 많이 해요. 이런 사업들. 아르바이트 많이. 아르바이트 이거 많이 해요. 매니큐 이러한 거 해. 손톱 이거. 눈썹. 속눈썹. 이런 거 사장님은 다 고려인. 다 러시아인이예요. 이렇게 많이 해요. 그냥 집에서 해 줘요. 아르바이트 한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평일에는 공장가요. 회사가요. 쉬는 날 집에서 아르바이트. 아파트나 원룸에서요. <사례 5-20>

위 고려인 연구참여자의 사례 중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에서 알 수 있듯, 고려인 조차도 편법을 일삼는 몇몇 고려인 자영업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일례로 몇몇 내국인 지역민과 고려인 공동체 내국인 관계자도 지역사회 내 고려인의 비합법 자영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집에서 미용실하고. 네일아트하고. 눈썹 문신하는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수백 개니까. 신창. 둔포만 수백 개면. 아산. 인천. 전국으로는 어떨겠어요. 어머어마하죠. 지금 보면 외국인 여성들은요. 고려인. 러시아 여성. 속눈썹이 생명인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화려해요. 그분들은 여성분들이 일단 속눈썹. 속눈썹도 굉장히 진하게 붙이고 다니거든요. 속눈썹이랑 네일은 생명이예요. 그분들은 그럼 그 많은 분들이 한국 네일샵을 갈까요. 한국 미용실을 갈까요. 다 어디서 그걸 할까요. 셀프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 그분 (고려인 여성 자영업자) 들 더 비싸요. 비싸. 지금 여기서 집에서 샅 하시는 분들 수입 엄청나요. 한 달에 500 버는 거 일도 아니예요. 5만 원씩 받는데. [...] 이렇게 (비합법으로) 하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그분들을 못 살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공정해야 하니까. 왜냐하면 힘들게 규칙을 지켜서 힘들게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뭘 하는 한국인들도 있고. 또 역시나 외국인. 고려인 (자영업자) 중에서도 (법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례 15-2>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갈등이 내국인과 고려인뿐만 아니라, 비합법 자영업 중인 고려인과 합법적 절차를 주장하는 고려인 간에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사례의 고려인 ○○○○씨는 카자흐스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신창면의 고려인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씨 역시, 몇몇 고려인 자영업자의 편법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문제가 확산되어 국내 고려인의 한국 정착에 제재가 가해질까 우려한다. 그는 변호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고려인 자영업자에게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고려인 간 갈등만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여기 안에서 굉장히 작거나 크거나 많은 편법과 불법적인 걸 하는데. (고려인이) 법에 대한 어떤 지키려고 하는 게 너무 없고. 우리 (고려인) ○○○○씨도 그것 때문에 너무 화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게. 이분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인들이 모르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언젠가 자꾸 커지고 문제가 생기고 드러나면. 그러면 그 제재가 결국은 고려인 전체한테 오게 되잖아요. 그럼 비자를 받기도 어려워질 거고. 뭔가 계속 제재가 걸리겠죠. [...] 처음에 못 모르고 가게를 비싼 돈에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고 얻어서. 정식 가게를 하는 (고려인) 사람이 가만히 봤더니. 난 세금도 내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해. 근데 집에서 매출은 더 높아. 그럼 자기만 바보인 거죠. 저도 (고려인) ○○○○씨도 처음에는 (편법과 불법을 일삼는 고려인들에게) 굉장히 싫은 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충알도 많이 맞았어요. 너는 우리가 성공하는 걸 싫어한다. 아닌데. 그래서 (고려인) ○○○○씨도 곤경에 처한 적이 많아요. [...] 나중에 참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에 이제는 뭔가 좀 시발점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산시만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걸 안 되는. 이렇게 아산시 내에서 만이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교육 몇 시간을 들으라든가. 사업자 등록을 내려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거. <사례 15-3>

지역사회 내 편법을 일삼는 고려인 자영업자의 증가는 내국인 지역민과 고려인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고려인 간 갈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고려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경제활동에 관한 인식 제고와 법률 교육 등이 요구된다.

## 2) 지역사회 내국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도약 현황

### (1) 고려인 고객 기반, 내국인 상점의 흥행

에스닉 집거지는 주류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소수민족집단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영업을 하는 등 지리적으로 계도화된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고려인 집거지의 경우, 내국인이 유출된 지역사회에서 고려인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재도약을 꿈꾸는 내국인 자영업자가 존재한다. 충남 아산시 신창면의 고려인 집거지에서 한국 간판을 달고 있는 상점 중 고려인 고객이 가장 많은 곳은 아래 사진의 미용실이다. 옆 건물에서 30년을 살며 한식당을 운영하는 내국인 점주의 ‘(고려인들이 우리 식당에) 와서 밥 좀 팔아주고 하면 좋아. 그리고 쌀 같은 것도 사다가 자기네들이 해 먹으니까 식당에 안 와’ <사례 13-3>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림 13〉 폐점한 번역·통역 서비스 상점 옆 미용실



왼쪽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 이 거리에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고려인이 많아짐에 따라 번역·통역 서비스 상점이 생겨났다. 하지만 2024년 12월 기준, 번역·통역 서비스 상점은 폐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바로 옆의 내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은 주말동안 이 거리에서 고려인 고객들로 가장 붐볐다.

주말에 미용실 (고려인) 사람들이 많아요. 주말에. <사례 5-21>

₩앞서 살펴보았듯, 복수의 고려인 여성과 러시아 출신 여성들은 고려인 여성 자영업자의 집에서 머리를 하고 있다. 반면, 이 거리에서 흥미로운 점은, 내국인 지역민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주요 고객이 고려인 부(父)와 남자 자녀란 것이다.

2016년 개점한 이 미용실에서 8년째 근무 중인 내국인 점주(50대 후반 여성)에 의하면, 고객의 경우 고려인 남자 성인과 그의 자녀인 남자아이가 대부분이다. 대다수는 1주에서 2주에 한 번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를 짧게 자른다. 원하는 머리 스타일이 있으면 사진을 보여주며 간단히 소통하기도 한다. 평일에는 30~40명의 고려인 고객이 이용하며, 주말에는 50~70명이 이 미용실을 방문한다. 반면 내국인 고객은 1~2명 뿐이다.

이제 가족끼리 온 (고려인) 분들은 원룸에 못 계시니까 이 근처 아파트로 다 이사 가셨어요. 회사가 여기 많잖아요. 현대자동차 있지. 그리고 이제 회사 단지가 많다 보니까. 현대 계열들이 많다 보니까. 그 하청들이 많아 가지고. [...] 고려인 (손님) 제일 많아요. [...] 저희 하루에 30, 40명. 주말 같은 경우는 50명까지, 70명 올 때도 있어요. 거의 고려인이예요. 한국분은 하루에 한두 명. 여기 한국분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고려인) 남자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 (고려인) 여자들은 우리 옛날처럼 머리를 안 자르고 기르시는 분이 있어. [...] 원래는 여기 중국 동포들이 많았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2000년대 초반. 2013년까지. 근데 그 뒤부터 이제 고려인들이 와 가지고. 지금은 여기 고려인들 집성촌이구요. [...] 제가 지금 (미용실 한 지) 8년 됐어요. [...] 본인들이 (사진) 갖고 와서 보시고, 여기 (고려인 남성) 분들은 무조건 짧은 거.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술 먹을 시간은 있어도 머리 자를 시간 없다고. 거의 근데 이분들은 이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자르는 분들이 있어요. [...] 아들이랑. [...] 대신 짧게들 자르세요. <사례 16-1>

이 거리는 식생활과 언어 등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에스닉 그룹을 위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고, 민족성을 보유한 사람들 간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Borjas 1992; Bourdieu 1986; Portes & Manning 1986; 이채문 외 2007; 김영술 2023, 350-351). 하지만 미용실을 운영 중인 내국인 자영업자는 고려인 남성을 위한 에스닉 미용실이 부재하다는 시장 공백을 인식하였다. 그녀는 경제적 재도약을 위해 에스닉 집거지 내 고려인 남성을 주요 고객으로 운영하는 미용실이란 차별화 전략을 선택하였다. 틈새 시장을 찾아내어 고려인 남성이란 에스닉 자본(ethnic capital)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이 미용실은 사회경제적 재도약을 위한 기회 및 실행의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에스닉 집거지 경제(ethnic enclave economy)에서는 에스닉 자영업자가 핵심 역할을 한다(김영술 2023, 350)고 말한다. 하지만, 이 지역사회에서 한국식 간판을 달고 있는 상점 중 고려인들이 북적이는 또 다른 상점은 과일과 채소를 파는 청과다.

많이 드세요. 채소. 채소 가게. 고려인 사람 많아요. 우리 채소 많이 먹어요. 여기 많이 사요.  
 〈사례 5-22〉

〈그림 14〉 자연식품을 판매하는 내국인 자영업자



앞서 살펴보았듯, 고려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빵·식료품점에서는 직접 만든 빵과 반찬, 요거트, 햄과 같은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반면, 내국인 자영업자는 고려인 자영업자와 비교하여, 국내에서 자연식품 유통이 편리하다는 요건을 내세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전략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반면, 내국인 자영업자는 고려인 자영업자와 비교하여 자연식품 유통이 편리하다는 경영 요건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제공할 수 있다는 비교우위를 점하여 에스닉 집거지 내에서 청과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자차를 이용하는 고려인이 많아지자, 내국인 지역민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차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고려인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

고려인들이 다 지금은 (차) 샀어요. [...] 사람들 보통 차 있어. 여기 카센터에 고려인 많이 와요. 직원 한국 사람. 손님 다 고려인. 〈사례 5-23〉

〈그림 15〉 고려인의 이용률이 높은 카센터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한의원



또한, 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조부모와 함께 살았던 경험이 있는 청년층 고려인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방문하기도 한다. 이들은 출신국에서 할머니와의 추억을 곱씹으며 이주국의 에스닉 집거지에서 부항을 뜨거나, 침을 맞기도 한다.

한의원. 위에 병원 가봤어요. 한의원 알아요. 고향에서 할머니 침 맞았어요. 10분 맞아요. 고려인 침 맞아요. 〈사례 5-24〉

저도 가끔.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침 맞고 저 봤어요. 할머니 생각해서. 아파서 한의원 가봤어요. 예전에. 〈사례 6-6〉

이처럼 침체된 지역사회에 고려인의 유입과 소비로 인해 내국인 상점이 흥행하고 있다. 하지만 내국인 자영업자와 고려인 고객 간 상호소통은 부족한 편이다. 내국인 상점의 경제적 재도약과 고려인 고객이 소비 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과 교육이 요구된다.

## (2) 상점 간 보완과 대처 : 작업복과 일상복 소비

충남 아산시 신창면 고려인 집거지만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의류 상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 지역의 고려인은 근처 공장과 건설 현장,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고려인은 아래 사진의 내국인 지역민이 운영하는 의류 상점에서 구매한 바지와 장화를 일명 '작업복'과 '작업화'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내국인이 운영하는 옷집에서) 이런 옷 사요. 공장 다닐 때. 이거 여기서 사요. 공장 다닐 때 이런 옷. 운동화 같은 거. 일바지 같은 거. <사례 5-25>

<그림 16> 10분 이내에 위치한 작업복과 일상복 상점



의류 상점의 내국인 자영업자는 기존의 상품을 고려인 노동자를 위한 작업복과 작업화로 재상품화하는 판매 전략을 피함으로써 내국인이 찾지 않는 상점을 재도약화 시켰다. 반면 오른쪽 사진에서 살펴볼 수 있듯, 이 지역사회의 고려인 여성들은 고려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옷 가게에서 쇼핑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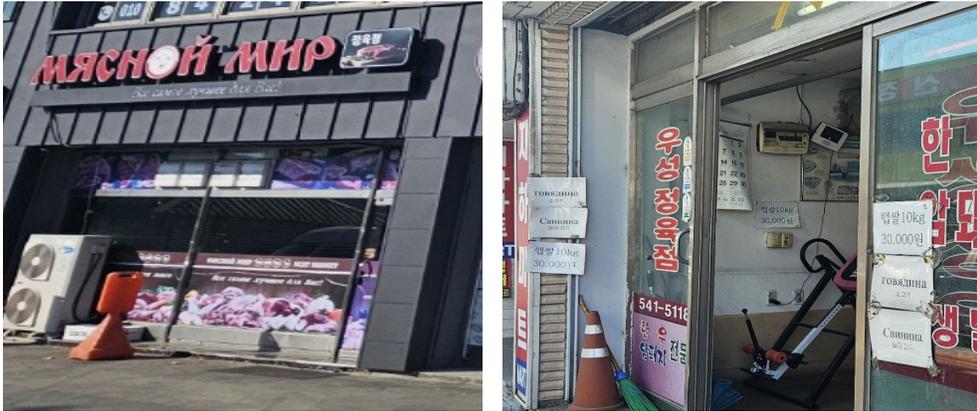
고려인 옷 가게. 옷 가게. 고려인 옷 가게 있어요. [...] 여가 활동. 옷 쇼핑 놀러 가요. 여기 옷집. 고려인 여자들. 러시아 여자. 여기서 옷 많이 사요. <사례 5-26>

고려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소비로 인해 지역사회 시장과 상품이 변화하고 있다. 에스닉 틈새 시장은 내국인 상점과 고려인 상점의 경제발전을 제공하는 동시에, 상호 보완하며 대처하고 있다.

### (3) 동종업의 증가 : 고려인 가족 사업의 장벽 허물기

위 업종들과 달리, 이 거리에서 내국인이 운영하는 정육점을 찾는 고려인 고객은 거의 없다. 근래 이 거리의 변화 중 하나는 고려인이 운영하는 정육점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7〉 고려인 운영 정육점과 내국인 운영 정육점



돼지고기가 제일 잘 나가요. 싸니까 그래요. [...] (가게에 손님) 가족 단위로 와서, 주말에 제일 많이 (사가요). 돼지고기 많이 사요. <사례 7-3>

한국어로 (간판) 고기세계. 고려인 정육점 많이 생겼어요. 한국인 정육점 안 가요. <사례 5-27>

2023년 개점한 위 사례의 고려인 정육점은 형이 점주이고 동생이 점원인 가족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여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고려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러시아 식당이 있던 자리를 인수하였다. 특히, 주말에 자녀와 부모 등 가족 단위의 고려인 고객이 방문하여 돼지고기 등을 구매해 간다.

반면 내국인이 운영하는 정육점의 경우, 내국인 지역민이 줄어들어 내국인 고객마저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정육점 외부에 러시아어를 병기하여 고려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고려인 고객이 찾지 않는 앞선 사례의 노년층 자영업자의 한식당과 치킨가게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 점주는 생고기를 구매하여 가정 내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고려인 고객의 특징과 식재료의 특성을 재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반영한 것이다.

과거 에스닉 집거지에서 이주민 자영업자란 내국인의 동종업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여 게토화를 우려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주민을 하나의 소비 계층으로 재인식하고 에스닉 전략으로 상점을 재형성함으로써 에스닉 집거지 거리를 변모시키고 있다.

#### (4) 소비 방식의 변화 : 프랜차이즈 가성비와 온라인 상점의 편리함

고려인 집거지에서 소규모 상점을 이용했던 고려인들이 가성비와 편리함을 이유로 프랜차이즈 매장인 다이소와 SNS를 활용한 쿠팡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18〉 고려인 고객이 다수를 차지하는 프랜차이즈 매장



내국인 손님이 줄어든 다이소 매장은 고려인 고객이란 특정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구매 패턴과 선호도 등을 탐색하고 구인 광고를 통해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고려인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여 안내 문구 등에 러시아어 표기를 병기하는 등 고객의 편리함을 꾀하고 있다.

여기 다이소. 다이소 (고려인)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다 있으니까 사람들 엄청 와요. 많이. 여기서 또 다른 물건들 많이 사세요. 〈사례 5-28〉

근래 청장년층 고려인의 경우, SNS를 활용한 쿠팡의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쿠팡 많이 있어요. 좋아요. 쿠팡. 다른 고려인도 많이 써요. 이렇게 저녁에. 통역기가 되니까. 그래서 앱에서 번역을 하니까. 번역 이렇게 스크린 스캔. 나이 많은 분 (한국어 번역 때문에 쿠팡 사용하기) 어려워요. 20대. (에서) 50대 (까지) 쿠팡 해요. 〈사례 5-29〉

한국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고려인은 번역 앱(app)을 통해 상품의 정보를 확인하고, 집 앞까지 배송받고 있다. 가성비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고려인 청장년층 사이에서 소비 방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도 SN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상점의 흥행으로 오프라인 상점이 비활성화 되고 있다. 고려인의 SNS를 활용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에스닉 집거지 경제(ethnic enclave economy)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프라인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내국인 및 고려인 자영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사회 활성화 차원에서 에스닉 경제 지형도 변화에 대한 대비와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V. 결론

노동 등을 목적으로 초국가적 이주한 고려인은 한국의 특정 지역사회에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의 고려인 집거지에는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려인 가족공동체가 밀집 거주하고 있다. 신창면에 위치한 고려인 공동체와 상점 등 에스닉 자본의 집적과 일자리, 주거 및 교육 환경 등이 고려인 유입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일자리 감소와 내국인 상사와의 갈등, 문화 부적응 등으로 타지역 또는 출신국으로 귀환하는 고려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생산 및 소비 인구의 유출로 이어진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신창면의 고려인 집거지를 떠나고 있는 고려인이 증가하는 바, 지역 차원에서 인구 유출에 대한 대비가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지역 거주 고려인을 인력으로만 보는 시각이 아닌, 주민으로 인식하고 주체적 행위자로서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 및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신창면 고려인 집거지의 주요 특징으로는 청장년층의 고려인을 중심으로 한 에스닉 경제가 발달해 있다. 지역사회 내 고려인 자영업자의 증가는 틈새 시장을 공략한 에스닉 상점 유치로 경제활동 전략을 펼치게 된다. 근래 신창면 고려인 자영업자의 에스닉 틈새 시장 전략 사례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고려인 지역민을 대상으로 24시간 빵·식료품점을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려인 가족구성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무실을 개점하여 통역 동행, 서류 처리, 택배 배송 지원 서비스를 확장, 병행하기도 한다. 이때 자격증 취득을 통해 체류자격 변경을 지원하는 기술교육원도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려인의 꽃 선물 문화를 반영하여 꽃집을 개점하고, 식문화가 다른 점을 이용하여 정육점을

개업하는 등 가족 사업도 증가하고 있다. 신창면 내 고려인 가족 사업의 증가는 타지역에 거주하던 고려인 가족구성원의 신창면 유입을 수반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에스닉 상점의 증가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자영업자와 점원, 고객을 지역사회로 유입시키는 등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고려인 여성을 위한 네일, 속눈썹, 헤어 등 뷰티 업종의 고려인 여성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뷰티 업종의 여성 자영업자는 가정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형태로, 편법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고려인 자영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고려인의 지역사회 유입은 내국인 지역민이 빠져나가 어려움에 처한 몇몇 내국인 상점에도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신창면의 내국인 자영업자는 고려인의 유입으로 인한 에스닉 틈새 시장을 공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재도약하고 있다. 특히, 고려인 부(父)와 남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내국인 미용실과 신선한 야채를 파는 청과가 고려인 손님들도 대체되고 있다. 또한 내국인 손님이 거의 없는 오래된 의류 상점에서는 고려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옷과 신발을 작업복과 작업화로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내고 있다. 반대로 고려인 여성들은 고려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옷 가게에서 쇼핑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낸다. 경제적 측면에서 내국인과 고려인 자영업자 간 상호 보완과 대처가 일어나고 있다. 반면 지역사회 내 고려인이 운영하는 동종업이 증가하면서 몇몇 내국인 정육점의 경우, 러시아어를 병기하며 고려인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래 신창면 고려인 집거지 경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가성비와 편리함을 이유로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온라인 상점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고려인과 내국인 자영업자가 에스닉 집거지 경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교육 및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신창면 고려인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낮아 직장의 내국인 상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는 직무 유지와 정규직 전환, 임금 상승 등 노동시장 고용에 장벽을 겪고 있다. 고려인은 직장으로부터 한국어 교육을 요구받지만,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한국어 배움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지자체와 교육 기관 등에서 고려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시행했지만, 일과 자녀 돌봄 병행의 어려움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 중인 고려인이 근무 외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말 또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자녀와 동행하여 분리된 공간에서 취업 관련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인력사무소와 연계하여 경제활동 중인 일용직 고려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회사인력사무소 간 수수료 문제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우수 인력을 희망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고려인 근로자를 위한 관련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신창면은 종합병원과

소아과가 부족하여 고려인 지역민은 근교의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이때 타언어에 비해 러시아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병원이 많아, 고려인 사무실을 통해 통역사가 병원을 동행하고 있다. 신창면에 위치한 병원과 고려인 간 네트워크 확대, 병원 내 러시아어 통역사 증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은 영주권(F-5) 또는 국적 취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려인 지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근래 신창면 고려인의 난폭 및 음주운전의 증가로 인해 내국인 지역민과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편법을 일삼는 고려인 자영업자의 증가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고려인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아산시만의 고려인 지역민, 자영업자 맞춤형 법률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이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아가 내국인과 고려인 지역민-자영업자 간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고려인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원 정책 개선 및 조례 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고려인 집거지에 선주민과 고려인의 공존과 유입 및 정주를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



- 곽동근·임영상. 2017. 고려인동포의 '귀환'과 도시재생 -안산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64, 175-212.
- 김경학. 1999. 중앙아시아 한인연구 : 중앙아시아 한인의 사회구조와 문화 -카자흐스탄의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5, 75-129.
- 김경학. 2014.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한국 이주와 정착 :광주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7(4), 259-282.
- 김경학. 2015.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한국 이주와 가족유형의 성격 :광주광역시 고려인 사례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9(2), 37-67.
- 김경학. 2018. 국내 고려인 아동의 국제 이주 경험과 초국적 정체성. 비교문화연구 24(2), 61-103.
- 김경학. 2025. 국내 고려인 청년 이주자의 민족집단 내 결혼. 가족과 커뮤니티 11, 5-33.
- 김영술. 2023. 한국 에스닉 집거지 경제의 조직과 활동 및 변화 연구 -고려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85, 345-381.
- 김영술 · 홍인화. 2013.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광주지역 이주와 문화변용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7(1), 131-161.
- 김재기. 2014.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 귀환 고려인의 이주배경과 특성. 재외한인연구 32, 139-163.
- 김조훈. 2025. 고려인의 귀환 이주와 사회통합에 대한 고찰 :일본 일계인(日系人) 귀환 이주와 비교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85, 70-99.
- 김지윤. 2024. 에스닉 경제와 디지털 기술의 활용 -한국 이주민 사례-. 디아스포라연구 18(1), 139-173.
- 김혜진. 2016. 한국 거주 고려인 청년층의 민족 정체성 변화. 슬라브학보 31(2), 31-70.
- 박신규·이채문. 2021. 귀환이주자로서 고려인의 지역사회 생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 :경주시 성건동 거주 고려인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15(2), 47-88.
- 배명숙. 2017. 동대문 고려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변화. 고조선단군학 36(36), 127-162.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4.
  - 선봉규. 2017. 한국에서 외국인 집거지의 형성과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2(2), 193-214.
  - 우복남. 2022. 충남 고려인 주민 이주현실과 지원정책.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1-267.
  - 이윤경. 2017. 초국가주의와 거주국 사회통합에 대한 이론적 접근. 한국학 40(4), 169-205.
  - 이은정. 2015.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귀환이주. 지방사와 지방문화 18(1), 219-249.
  - 이채문. 2016. 중앙아시아 고려인 집거지역의 형성과 변동 :카자흐스탄 깐질오르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1(1), 185-210.
  - 이채문·이동진·조현미. 2007. 재외한인의 자영업에 관한 연구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를 사례로. 한국연구재단.
  - 이호영·조성은·한은영·고홍석·배영. 2013. 소셜플랫폼의 확산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와 미래정책(II)-총괄보고서: 소셜플랫폼이 한국에 가져온 사회문화적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임채완 · 선봉규 · 이소영. 2014. 국내거주 고려인동포 실태조사.
  - 정수희 · 이병민. 2014. 창조적 장소자산으로서 예술자산의 유형과 사례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1), 28-44.
  - 지막심. 2024. 고려인 청년 교육과 취업문제.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포럼, 127-147.
  - 최아영. 2025. 공동체 라디오와 에스닉 미디어 사이에서 :광주고려인마을 GBS 고려방송의 정체성 연구. 역사문화연구 93, 43-80.
  - 충청남도. 2023.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시행 2023.06.02.).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2021.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1.08.17.).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 Creswell, J. 2014.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George J. Borjas. 1992. Ethnic capital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1), 123-150.
- Guarnizo, Luis Eduardo. 2003. The Economics of Transnational Living.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3), 666-699.
- Guarnizo, L. E., A. Portes., and W. Haller. 2003. Assimilation and Transnationalism : Determinants of Transnational Political Action among Contemporary Migrants1.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8(6), 1211-1248.
- Levitt P. and G. Schiller. 2004. Conceptualizing Simultaneity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perspective on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1002-1039.
- Marcelli, E. A. and B. L. Lowell. 2005. Transnational Twist :Pecuniary Remittances and the Socioeconomic Integration of Authorized and Unauthorized Mexican Immigrants in Los Angeles County1.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9(1), 69-102.
- Mazzucato V. 2000. Transnational networks and the creation of local economies : Economic principles and institutions of Ghanaian migrants at home and abroad. Nederlandse Organisatie voor Wetenschappelijk Onderzoek.
- Portes, A., W. Haller., and L. Guarnizo. 2002. Transnational Entrepreneurs :An Alternative Form of Immigrant Economic Adapt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 278-298.
- Portes, Alejandro., Robert D. Manning. 1986. The immigrant enclave :Theory and empirical examples. Competitive ethnic relations.
- Sana, M. 2005. Buying membership in the transnational community :migrant re-mittances, social status, and assimilation.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4, 231-261.
- Snel, E., G. Engbersen., and A. Leeke. 2006. Transnational involvement and social integration. Global Network 6(3), 285-308.

- 아산시 통계. 2024. 2024년 12월말 기준 인구(외국인 포함). 출처: [https://www.asan.go.kr/stat/main/index.php?m\\_cd=50&m\\_mode=view&pds\\_no=2025010814032360263&PageNo=2](https://www.asan.go.kr/stat/main/index.php?m_cd=50&m_mode=view&pds_no=2025010814032360263&PageNo=2) (검색일: 2025. 03. 24.).
- 아산시 통계. 2025. 2025년 2월말 기준 인구(외국인 포함). 출처: [https://www.asan.go.kr/stat/main/index.php?m\\_cd=50&m\\_mode=view&pds\\_no=2025031111240544067&PageNo=1](https://www.asan.go.kr/stat/main/index.php?m_cd=50&m_mode=view&pds_no=2025031111240544067&PageNo=1) (검색일: 2025. 03. 24.).
- 아산투데이 <https://www.asantoday.com>
-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 충청신문 <https://www.dailycc.net>

● 투고일: 2025.06.26. ● 심사일: 2025.07.21. ● 게재확정일: 2025.08.17.

| **Abstract** |

**A Study on the Ethnic Niche Market Strategy of  
Koryoin Enclaves: Focusing on Koryoin and Native  
Korean Self-Employed in Sinchang-myeon, Asan City,  
Chungcheongnam-do**

Lee Yeji (Daegu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thnic niche market strategies of Koryoin and native Korean self-employed business owners in the enclave of Sinchang-myeon, Asan City, Chungcheongnam-do and examines their effects on local population inflow and economic revitaliza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2 Koryoin and 4 native Korean small business owners. The Koryoin operated diverse businesses, including grocery stores, translation and document-processing offices, technical training centers, beauty businesses. Some native Koreans had little interaction with the Koryoin, whereas others perceived new market gaps and sought to implement differentiation strategies. These Koreans pursued their economic revitalization by operating beauty salons, fruit and vegetable stores, and clothing shops. The activation of the ethnic economy attracted Koryoin business owners, workers, and customers from other regions, stimulating loc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However, conflicts within the Koryoin intensified due to the spread of irregular business practic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community-tailored policies for Koryoin.

〈Key words〉 Koryoin enclave, Ethnic economy, Ethnic niche market strategy, Koryoin small business owners, Native Korean small business owners, Community-tailored policies for Koryoin